

전남도, 지역색 살린 매력 관광지 개발 속도낸다

내년 관광분야 국비 712억 확보
남부권 광역개발사업 등 본격화
체류 콘텐츠·섬 특화상품 개발

전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사업 등지
역색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지 개발에 속
도를 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
에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뒷
받침할 관광분야 국비 712억원을 확보
했다.

전남도는 내년 국비가 남해안권을 지
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하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과 전남 섬의 매
력을 알리는 섬 방문의 해 운영의 토대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전남의 보석 같
은 섬·갯벌·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 경
관을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
광'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영광 백수해안 관광관 명소
화 10억원(총사업비 401억원) △완도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16억원(총
사업비 150억원) △고흥 선셋가든 관광
경관 명소화 29억원(총사업비 106억

원) △여수 뷰티·스파·웰니스관광 거점
화 31억원(총사업비 213억원) 등 총
27개 세부사업, 663억원(총사업비
6,376억원)을 확보해 전남 곳곳이 체류
형·체험형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첫
삽을 끼게 됐다.

또 국비 20억원을 활용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섬을 찾는 관광
객에게 숙박비 등 여행경비 일부를 지
원하는 '섬 반값여행'을 추진하고, 섬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 프로그램,
지역 참여 행사 등을 통해 전남의 글로
벌 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화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7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전
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10억원
(총사업비 100억원) △영암 국제 바둑
연수원 견립 탐정성 조사용역 2억원(총
사업비 380억원) 등을 반영, 지역 특색
에 맞춘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 관광
분야, 스포츠 분야 인재 양성의 발판도
마련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관광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
던 것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국
회와의 긴밀한 소통의 결과다"고 평가
했다.



2025년 중소기업 합동시상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6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 합동시상식에서 전체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전남도 제공

올해 광주 방문의 해, 6500만명 다녀갔다

G-페스타 효과…전년 6.8%↑
체류형 관광 확대 등 질적 변화

'광주 방문의 해' 인 올해 광주를 다
녀간 방문객이 6,500만명을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자료
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광주 방문
객 수는 6,501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411만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
·도 중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광주 방문의 해'
선포 이후 국제행사 연계, 광주만의 특
화관광상품 개발, 통합 홍보·마케팅 등
을 추진하며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
해왔다.

광주·전남·전북이 함께 '호남관광
문화주간'을 운영해 가을철 관광객을
호남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역간
협력 관광 모델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18민주화운동 제

45주년을 맞아 전국적 관심이 이어지며
전일빌딩245 방문객은 전년 대비
51%,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객은
15.5% 각각 증가했다. 특히 5월 한 달간
광주 전체 방문객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총장축제를 포함한 G-페
스타 기술 시즌과 호남관광문화주간 등
주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서 10월 방문객이 29.8% 증가해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방문객 수 증가에 그치지 않
고 체류형 관광 확대라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숙박 방문자는 전년
대비 5.9%(251만명) 증가했으며, 평균
숙박일수도 함께 늘어 체류 수요가 회
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에는 캠핑장·펜션의 소비 비중
이 15.2%, 11월에는 내국인 호텔 이용
비용이 10% 증가하는 등 체류형 업종
에서 소비가 증가했다. 평균 체류시간
도 3,032분(50시간32분)으로 전국 평
균보다 525분(8시간45분) 길고,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광주시는 당초 목표인 '도시이용인
구 3000만 시대'의 서막이 활짝 열린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총괄 테스크포스
(TF)를 운영해 관광도시의 기틀을 탄
탄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6차례의 광주 방문
의 해 추진TF를 운영하며 통합 홍보 전
략을 수립했다. TF는 부서와 유관기관
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총괄 조정하
고 대규모 국제행사, 축제 등을 관광 홍
보 콘텐츠와 연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승구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통해 확인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TF 협업 체계를 운
영해 방문의 해의 성과가 중장기 관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광주관광
도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경선 도의원 "통합 무관, 목포대 단독 의대 유치해야"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
당·목포5)은 지난 26일 "목포대학교
단독 의과대학 유치와 의대 부속병원
설립은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무산됐다
고 해서 의대 유치까지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목포시민은 단 한 번도 대학 통
합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전남도가 순



전대-목포대 통
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다른 의견도 드러
냈다.

전 의원은 "우
리가 35년 동안
요구해온 것은 오직 하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의대 부속병원 설립이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통합은 목포 시민의

요구가 아니었지만, 의대 유치 논의 한
복판에 갑자기 통합이 끼어들었고, 그
결과 본질은 흐려지고 지역에는 갈등만
남았다"며 "35년을 기다린 목포 시민의
요구, 이제는 정치가 응답해야 할 시간
이다"고 덧붙였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최근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순천대 학생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정근산 기자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열차 출발

김용태·오경미·정성홍 등록
김해룡·문승태·장관호 참여

광주·전남 지역 민주진보교육감 시·
도민공천위원회가 후보 단일화에 참여
할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28일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시·
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공모 결
과 광주에서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
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
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3명이

등록했다. 세 예비후보는 시민공천위원회
회원들이 제시하는 광주 교육정책을
실천하겠다는 것과 경선 방식 및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시민공천위는 예비후보들과 합의해
경선 방식을 확정하고, 두 차례 정책도
론회를 거친 후 내년 2월 9일부터 10일
까지 시민공천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

시민공천위가 단일 후보를 확정하
면,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과 1대 1 대
결구도가 성사된다.

최환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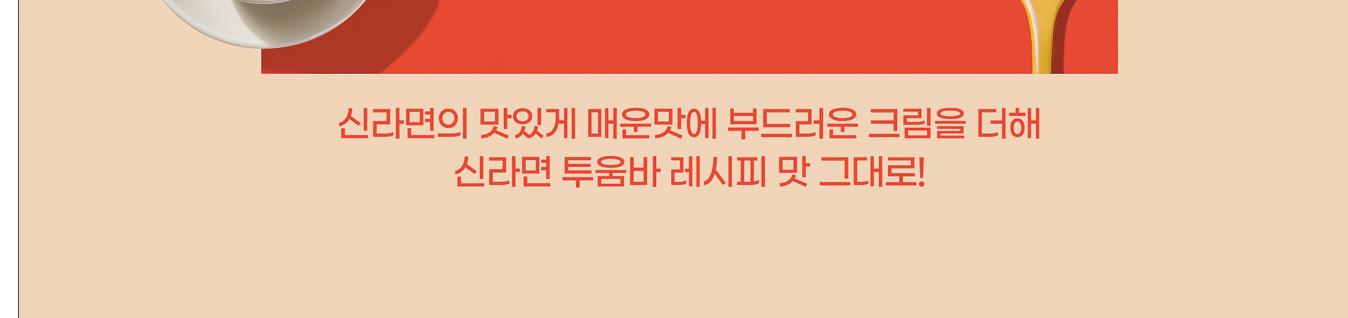
광주소방, 2025 긴급구조훈련 전국 1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8일
"2025 긴급구조종합훈련 평가에서 1위
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재난대응 체계의 실효성과 현

장 지휘·통제 능력, 유관기관 협업 수
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완성도 등
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광주소방은 지난 9월 빛고을전남대
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긴급구조종합훈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신라면 투움바 레시피 맛 그대로!